재미수필문학가협회 모임 안내

-월례회-

ZOOM Meeting / 대면모임

-연락처-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KEAA)
4946 East 6th St,. LA, CA 90022
사이트: http//jaemisupil.com
이메일: jaemsupil2021@gmail.com

-동네방 모임-

매달 지역별로 모이는 소그룹
(작품 합평, 친목 도모, 문법수업 등)
벨리방-김화진/이리나 athrina0314@gmail.com
엘에이방-여준영/신혜원 sokamike@hotmail.com
토렌스방-김카니/최근자 apoconnie@yahoo.com
온동네방-박진희/김민정 jinheepgh@gmail.com
오렌지방A-성민희/이희숙 janelyu36@gmail.com
오렌지방B-한영/권조앤 hahnyoung29@gmail.com

3월 '봄 나들이' 단체 사진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뉴스레터 제 77호

풍전수필

2022 Spring

봄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재 미 수 필 문 학 가 협 회

협회장 에세이
소리의 존재감 / 이현숙
추천 수필
삶의 광택 / 이어령

회원 수필
사람 손수건 / 김영교
어머니의 빈방 / 조성환
고마운 사촌 언니 / 이리나
사소한 즐거움에 관하여 / 박연실
봄과의 약속 / 김민정
괜찮다, 그러면 좀 어떤가 / 이혜숙
구두약 / 조모제스
책자에 담긴 잔치 / 노영매

공부합시다
효율적인 수필낭송법 / 박양근
'봄 나들이' 이모저모

2021년'재미수필'제 23집 출간
<재미수필 제 23집>
회원 44명 작품 수록
자유제 62편 / 특집-엘에이 폭동 8편
/ 테마-여행 8편
제8회 재미수필문학상 수상작 1편
제16회 재미수필신인상 수상작 5편
총434 페이지
구매 연락처
이메일- jaemisupil2021@gmail.com

소리의 존재감

회장 이현숙

외부에서 오는 다양한 자극을 받으며 산다. 우리 집은 큰길가 코너라 분주한 소리로 아침이 열린다. 건너편 학교로 향하는 학생이 왁자지껄 나누는 아침 인사와 학부모 차가 꼬리를 물고 늘어서며 내는 소리가 활기차게 창을 흔든다. 오후에는 '빵빵' 경적을 울리며 "타마레스~, 참뽀라도!"를 외치는 히스패닉 여인의 걸걸하고 끝자락이 갈라진 목소리가 담을 넘는다. 오늘 몇 번을 외쳐야 밀차에 준비해온 음식을 다 팔 수 있을까. 생계를 위한 애잔함에 가슴이 찡하다. 한여름에도 계절 감각을 잃은 '루돌프 사슴코'로 아이들을 부르는 아이스크림 트럭은 이 골목 저 골목 기웃거린다. 동심을 자극하는 소리가 정겹다.

세 블록 떨어진 알폰소 성당에서 '티잉~팅~' 울리는 종소리는 은혜롭다. 마음속에 깊은 진동으로 퍼지며 잘못한 일은 없는지, 감사함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은 아닌지 묵상하게 한다. 요즘도 종지기가 종을 치는지 성당에 가서 물어볼까 하는 호기심이 일지만, 꾹 참는다. 혹시 모를 종지기에 대한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아서다.

어제는 강한 바람이 온종일 불었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치며 내는 소리와 팔랑이는 몸짓이 잘 어울려 멍하니 바라봤다. 키다리 야자수 나무의 커다란 잎사귀는 견디기 힘들었는지 '부지직 뚝' 하며 땅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뿐인가. 집 안에는 '윙'하며 돌아가는 냉장고와 주전자의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편안함을 준다. 뻐꾸기시계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매시간 문을 밀고 튀어나온다. 뒷집에서 들려오는 마리아치 밴드의 흥겨운 리듬은 나도 모르게 발장단을 치게 한다.

몇 년 전 중환자 병상에 누웠을 때다. 한쪽 팔에 매달린 혈압계가 지속해서 뱉어내는 '피시식' 작은 공기의 흔들림이 나에게 말을 건냈다. "내 소리가 들리나요? 그럼,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울컥 치밀던 반가운 소리였다. "그래,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며 의지가 됐던 기억이 생생하다.

'탁탁'. 컴퓨터 자판기 두드리는 소리는 나를 자극한다.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징징거리고, 떠오른 생각을 잊히기 전에 얼른 옮기지 않는다고 보챈다. 자석에 끌리듯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툭툭 맞장구를 친다. 요즘은 중독된 듯 하루라도 가까이하지 않으면 죄책감까지 든다. 가끔 변심한 듯 연필로 종이 위를 사각사각 채우고 쓱쓱 싹싹 지우개로 지우며 벗어나려 하지만, 결국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하니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자 애증 관계다. '탁탁'. 지금도 그 소리는 나와 함께 희망과 길을 담는다.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했다. 일상의 소리에는 삶이 담겨 있기에 살아있다는 울림이다. 상대에게 무심히 전달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며 스치고 지나는 소리는 우리가 얻는 특혜다. 그 안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이해하고 수용해 서로 익숙해지는 것이다. 소리를 지각한다는 것은 청각적인 능력 그 이상의 의미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소리는 내가 살아있기에 존재한다.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 잘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며 함께 가는 거다.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는 소리와 함께 세상 속을 거닌다. 부드럽거나, 시끄럽거나 혹은 울퉁불퉁하거나.

삶의 광택

이어령 교수

나는 후회한다. 너에게 포마이커 책상을 사 준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 그냥 나무 책상을 사 주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어렸을 적에 내가 쓰던 책상은 참나무로 만든 거친 것이었다. 심심할 때, 어려운 숙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바깥에서 비가 내리고 있을 때, 나는 그 참나무 책상을 길들이기 위해서 마른 걸레질을 했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문지른다. 그렇게 해서 길들여져 반질반질해진 그 책상의 광택 위에는 상기된 내 얼굴이 어른거린다.

너의 매끄러운 포마이커 책상은 처음부터 번쩍거리는 광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길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물걸레로 닦아 내는 수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결코 너의 포마이커 책상은 옛날의 그 참나무 책상이 지니고 있던 심오한 광택, 나무의 목질 그 밑바닥으로부터 솟아 나온 그런 광택의 의미를 너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책상만이 아니었다. 옛날 사람들은 무엇이든 손으로 문지르고 닦아서 광택을 나게 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청동 화로나 놋그릇들은 그렇게 닦아서 길을 들였다. 마룻바닥을, 장롱을, 그리고 솥을 그들은 정성스럽게 문질러 윤택이 흐르게 했던 것이다. 거기에는 오랜 참을성으로 얻어진 이상한 만족감과 희열이란 것이 있다.

아들이여, 그러나 나는 네가 무엇을 닦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옛날 애들처럼 제복 단추나 배지를 윤이 나게 닦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양은 솥은 너의 포마이커 책상처럼 처음부터 인공적인 광택을 지니고 있어 길들일 필요가 없고, 또 길들일 수도 없다.

아들이여, 무엇인가 요즈음 사람들이 참을성 있게 닦고 또 닦아서 사물로부터 광택을 내는 일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구두닦이 정도가 아닐까 싶다. 카뮈라는 프랑스의 소설가는 구두닦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무한한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구두닦이 아이들이 부드러운 솔질을 하고 구두에 최종적인 광택을 낼 때, 사람들은 그 순간, 그 부드러운 작업이 끝났거니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바로, 그 억척스러운 손이 다시, 반짝거리는 구두 표면에 구두약을 칠해 광을 죽이고, 또 문질러 가죽 뒷면까지 구두약이 배어 들 게 하고, 가죽 맨 깊은 곳에서 빚어지는, 이중의, 정말 최종적인 광택이 솟아나게 한다.

아들이여, 우리도 이 생활에서 그런 빛을 끄집어낼 수는 없는 것일까? 화공(化工) 약품으로는 도저히 그 영혼의 광택을 끄집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투박한 나무에서, 거친 쇠에서 그 내면의 빛을 솟아나게 하는 자는, 종교와 예술의 희열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다.

정말 그럴 때가

이어령(1934～2022)

정말 그럴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신발 옆에 벗어 놓았던 작은 신발들
내 편지 봉투에 적은 수신인들의 이름
내 귀에다 속삭이던 말소리들은
지금 모두 다 어디 있는가
아니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라도 했었던가

그런 때에는
연필 한자루 잘 깎아 글을 씁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어제 보다 좀 더 자란 손톱에 대하여
문득 발견한 묵은 흉터에 대하여
떨어진 단추에 대하여
빗방울에 대하여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황혼

이육사(1904~1944)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저 십이 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치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喑喑)히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사람 손수건 / 김영교

지난달이었다. 한인 타운에 사는 친구가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녀가 가져온 건강식 고구마를 찜통에 넣으며 나를 생각하는 고운 마음씨에 잔잔한 감동이 일었다. 그즈음 나는 혼자 노는 일에 익숙해지려고 애쓰고 있었다. 때마침 정원에 만개한 군자란이 친구를 반갑게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 피어오르는 미소와 느릿한 목소리가 우리 집 안팎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느긋하게 젖어 들었다.

의미 있는 주말 오전, 마침 생일이어서 그날따라 또 새로운 감흥이 있었다. 첼로 하는 친구와 가슴을 열고 찬송가, 솔베이지 송, 오 대니 보이와 송창식의 고래사냥... 감격하며 힘차게 불렀다. 가슴이 뻥 뚫리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처방약 후유증으로 성대 근육이 눌러져서 목소리가 가늘어진 상태였다. 음량이 줄고 줄어 사라지다시피한 목소리에서 노래가 튀어나왔을 때 놀란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가슴이 벅차서 터질 듯한 감동이 밀려왔다. 무사히 하루 24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절실하게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세월이 아니던가.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고였다. 기쁨의 눈물은 눈치가 없었다. 훌쩍거리는 나에게 말없이 건네준 친구의 하얀 손수건. 주체할 수 없는 콧물과 눈물을 닦아주고 추스르도록 등을 토닥여 준 친구의 마음이 무척 따스했다. 홀로서기와 혼자됨의 생활을 힘겹게 적응해가는 중이었다.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할 때 귀한 손수건이 나타나 준 것이다. 나의 젖은 마음이 마르도록 달래주는 배려의 사람 손수건이었다. 예기치 않았던 그녀의 방문은 보너스 주말 선물이 되었기에 사람 손수건이 아닌가 여겨졌다. 서로 부둥켜안았다.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고 나서 쳐다본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그날 밤늦게 손수건을 깨끗하게 빨았다. 다림질로 주름살 없이 쫙 폈다. 펴진 손수건을 네모반듯하게 곱게 접어서 카드와 함께 봉투에 넣었다. 그 사이 내 마음의 구김살도 펴진듯 하여 기뻤다. 조만간 적당한 시기에 전해 주리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편안했다.

가슴 따스한 경험이 있고 난 뒤 힘들지 않게 서서 움직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신통한 일이었다. LA 안과 병원에 약속이 잡혀 있던 날 잠깐 짬을 내어 친구를 찾아갔다.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다. 그녀의 손에 손수건을 건네주며 쿠키 한 봉지 내밀었다. 이토록 오랜 인연이 가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손수건의 의미를 짚어본다. 흐르는 땀을 닦거나 옷이나 몸에 묻은 액체를 닦아내거나 손 씻은 후 물기를 없앨 때 손수건은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한다. 또는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을 때 깔아주는 즉석 방석 대용품 등 손수건의 의미는 다양하다. 주위에 배려심 많은 손수건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 아닌가. 상대방의 형편을 눈치채고 먼저 손을 내밀어준 친구는 분명 사람 손수건이었다. 지는 해의 여린 여열을 바라보게 만든 손수건 사건, 발이 없는 손수건이 내 마음에 걸어 들어와 행복한 하루를 안겨주었던 그 날의 기억은 가슴 따스한 수채화로 남아있다.

어머니의 빈 방 / 조성환

담쟁이 잎들이 수런거리고 있다. 줄기를 잡고 있던 아이 손바닥만 한 잎들이 부황이 들었다. 아픈 기색이 역력한 잎은 손아귀의 힘마저 겨워 보인다. 색 바랜 잎은 시차를 두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앉겠지만, 되돌아볼 수는 없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며칠 바람이 사납게 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점령군처럼 안개가 꾸역꾸역 몰려들었고 어떤 날은 뿌연 는개가 아침의 대지를 적셔놓았다. 전깃줄에는 비둘기들이 목을 깊숙이 집어넣고 동동동 줄지어 앉아 체온을 나누고 있다.

이민 오던 해부터 동생네 집에 30년을 같이 살았던 어머니 침실이 휑하니 비었다. 줄지어 앉아 있던 비둘기 한 마리가 쏙 빠져나간 자리처럼.

오늘은 동생과 함께 어머니에게 가는 날이다. 달포 전에 어머니는 동생 집에서 양로병원으로 옮기셨다.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했다. 큰아들인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되었다가 남편이 되기도 했고, 작은아들은 당신의 오빠가 되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평균 연령이 높아져 생긴 노인 문제를 어머니도 피해가진 못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보따리를 쌌다. 병원 직원이 옷장에 옷을 걸어두면 아침에는 어김없이 보따리 두 개가 침대 위에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일하고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보따리를 싸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에취, 컥 컥.

얘가 웬 재채기를. 동생이 울음을 참느라 기괴한 소리를 내는 것을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히야, 히야. 엄마 다시 데려오자. 어떻게든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그래, 생각 좀 해보자. 나는 목이 멘 동생을 달랬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올 줄 모르고 어머니의 입원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동생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도 형제들의 생각은 각각 달랐다. 두 여동생은 오빠들을 원망했다.

어머니가 입원한 후로 나는 같은 병원에서 어머니와 친구 할만한 환자를 찾아냈고, 병원 측에 간청해서 어머니를 그분 병실 옆으로 옮기게 했다. 두 노인은 잘 어울렸다. 그분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병실 밖 복도를 걸으며 친언니 대하듯 했다. 그분을 만난 것은 어머니나 우리에겐 다행이었다.

시간 맞춰 식사와 약 먹이고, 빨래해 주고 샤워까지 시켜주며 24시간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양로병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었다. 고마운 일이다.

히야, 엄마가 적응이 좀 된 것 같지? 돌아가는 길에 동생이 말했다.

동생의 말소리와 표정이 모처럼 밝았다.

어머니는 처음 입원할 때와는 달리 집 얘기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집을 그리워할 때 무너지던 억장보다, 집을 잊어가는 모습이 우리를 못 견디게 했다.

담쟁이 마른 잎 같은 환자들만 있는 양로병원에서 어머니도 그 풍경 속의 한 잎이 되어 우리를 점점 잊어가시는가.

이불을 덮어도 잠이 덮이지 않는 가을밤이다.

고마운 사촌 언니 / 이리나

한국에서 온 국문학과 교수님이 강의 중에 '글을 잘 쓰려면 무조건 써야 합니다.'라고 힘줘 말씀하셨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라는 평범한 말이지만 교수님이 자기의 경험을 들추어내면서 강의하니 더욱 진리로 다가왔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비평하면서, 책도 몇 권씩 써내는 국문학과 교수도 질리도록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컴퓨터를 켜고 글을 쓰려고 하니 글감이 없었다. 오늘따라 모니터는 더 커 보였고. 인터넷에 있는 고운 무지갯빛이 어우러져 있는 장미에 취해 있는데, 이쪽으로 걸어오는 사촌 언니가 얼핏 보였다. 엄마가 시집오면서 만난 거의 오십 년을 동무하며 지낸 사촌 언니와 엄마는 지금 집에 다니러 왔다. 내 기억 속의 칠십 넘은 동리 어르신은 기력이 달리는 노인이었는데, 둘은 덥다며 아직도 무릎 밑으로 약간 내려간 핑크빛과 옅은 보라색의 옷을 더 선호한다.

"아니, 넌 글 쓴다더니 인터넷 보고 있니?"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리서치야. 알아야 글을 쓰지."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된 나는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급기야 응접실에 있던 엄마까지 가세했다.

"글 쓰고 있는데 왜 방해야. 이리 오라니까. 글 쓰기가 얼마나 힘들고 막막한데. 방해하지 말고."
나의 글쓰기는 이제 시작했는데, 엄마와 언니는 그게 무슨 큰 감투인 줄 안다.

"아니 글을 쓴다기에 어떻게 쓰나 했더니, 인터넷만 보고 있잖아."

"그것도 다 공부야. 이리 와."

엄마가 언니의 손을 끌고 응접실로 향했다. 이제 나의 관심은 현란한 무지갯빛 장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로 쏠렸다.

"전에 헨더슨에 있는 어떤 호텔에 가서 씨푸드 뷔페를 먹었는데. 그 집 참 맛있었어. 그 카지노 이름이 뭐지."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두 사람은 본인이 알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헨더슨에 있는 호텔이라고 하면서 다운 타운과 스트립에 있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이름까지 다 나왔다. 혼자 키득대면서 웃었다. 도중에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대화가 중단되었다. 전화를 끊은 둘은 전에 하던 대화를 계속하려 했다.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한국에 살았을 때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

"아니야, 새로 생긴 중국 마켓 얘기하고 있었잖아"

대화 도중에 스토브 위에 올려놓은 냄비의 물이 끓어서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여자 둘이 요리하는 곳이 아니다. 언제 마늘을 넣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불의 세기는 어떠해야 하는지, 왜 참기름이 들어가야 하는지까지 시시콜콜 의견이 엇갈렸다. 요리가 대충 끝났는지 둘은 다시 응접실로 향했다. 그리고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로 대화는 다시 시작되었다.

젊어서 부지런히 살았던 두 사람.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한다. 정작 쓰려고 했던 무지갯빛 장미 이야기는 쓰지 못했지만, 적당한 때에 찾아와 마땅한 글감을 준 언니와 엄마에게 감사하다. 점점 글은 공간을 메우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밥을 짓듯이 공들여지어야 하는 걸 느낀다. 글을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2022년 〈재미수필 24집〉 원고 모집

2022년에 발간할 <재미수필 24집>을 준비합니다.
회원들의 문학을 향한 열정으로 엮고자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제출자격: 본 협회 정회원 (등단작가)
* 기간: 2022년 3월1일 ~ 2022년 6월30일
* 퇴고 마감: 2022년 6월30일

* 원고는 1, 2, 3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1. 자유제 2편
  2. 자유제 1편+테마수필(주제: 여행) 1편 or
  3. 자유제 1편+[특집] 디카수필 (주제: 세상을 읽다) 1편

* 작품 분량
  자유제- A4 용지 1장 반 내외 (글자 크기 10, 줄 간격 160%)
  테마수필(여행) - A4 용지 1장 반 내외 (글자 크기 10, 줄 간격 160%)
  특집/*디카수필 - A4 용지 1장(1,000자 미만, 글자 크기 10, 줄 간격 160%)
  * 작품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의 사진을 한 장 첨부 (수필집에는 흑백으로 나옴)
  주) 원고 분량이 초과될 시에는 편집부에서 임의로 조절합니다.

* 약력: 등단지, 등단 연도, 수상 경력, 저서명 등 세 줄 이내
  주) 초과될 시에는 편집부에서 임의로 조절합니다.
* 사진: 선글라스를 끼지 않은 얼굴 사진
*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협회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 원고 제출: 24집 게시판/ http://jaemisupil.com/jaemisupil22
  재미수필 이메일: jaemisupil2021@gmail.com ('재미수필 원고' 명시)
* 연회비 $120/ 이사회비 $200/ 출판비 $150 /서재 개설시 $50
  (출판비와 회비를 포함하여 6월 30일까지 보내주십시오)
  Pay to Order ; KEAA
  보낼 주소 ; 김자넷 (Janet Kim) 회계
  22533 S. Vermont Ave. Unit 57 Torrance, CA. 90502

사소한 즐거움에 관하여 / 박연실

머리빗을 샀다. 가지고 있던 빗은 언제부터 쓰던 것인지 기억이 확실치 않다. 아마도 10여 년 전 '달라 스토어'를 하던 때부터인 것 같다. 빗살이 몇 개 부러진 것을 그대로 쓰다가 이번에 손잡이의 칠이 벗겨져 바꾸게 되었다.

가게에는 뜯어지고 부서진 물건들이 넘쳐났다. 팔 수는 없지만 쓸 수는 있는 물건들이 하루에 한 바구니 씩 가득 찼다. 버리기 아까워 쓸 만한 것들을 집으로 챙겨 오곤 했다. 종류별로 뜯어놓은 지퍼 백, 짝이 안 맞는 슬리퍼, 흠집이 생긴 그릇 등, 쓰레기로 버리기에는 멀쩡한 물건이었지만 팔 수는 없는 것이었다.

새로 구입한 연두색 빗은 손에 잡히는 감촉이 좋았다. 손잡이가 가볍고 매끈하다. 우리 가게에서 팔던 빗 보다 몇 배나 비싼 것이니 머리도 더 잘 빗어질 것 같았다. 길지도 않은 머리를 공들여 빗었다.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다. 작은 물건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만족감은 기대 이상으로 컸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어린 시절에는 과자 하나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즐거웠다. 학교 앞 문방구를 수시로 들락거렸다. 울긋불긋한 사탕과 물감 풀어 얼린 얼음과자, 유리병에 담겨있는 별사탕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길거리에서 연탄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먹는 달고나, 입안이 퍼렇게 변하도록 빨아먹는 사탕 한 알을 물고 해가 저물도록 골목길을 뛰어다녔다.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을 듯했다.

지금 내가 즐기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욕실에 있다. 필요한 곳곳에 비누를 놓아두는 것이다. 예전에는 세면대에만 비누를 두고 썼다. 목욕할 때는 욕조로 가져가기도 하고 샤워장으로 옮기기도 했다. 세수할 때는 다시 들고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별 불만 없이 생활해 왔다. 어느 날부터 그 일이 번거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욕조 옆에, 샤워장에, 세면대에 비누를 놓아두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부자가 된 것 같았다.

비누 하나가 주는 행복과 풍요를 알고 나서 샴푸도 하나씩 놓아두었다. 욕조에 하나, 샤워장에 하나, 그다음에는 치약, 칫솔도 군데군데 놓았다. 사소한 일이 편리함 뿐 아니라 큰 즐거움을 주었다. 비누, 샴푸, 치약을 욕조나 샤워장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었다. 작고도 하찮은 변화 때문에 '나도 이제 살만 하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에 우쭐해지기까지 했다. 여느 부자 못지않은 풍족한 생활을 하는 느낌이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었다.

크고 작은 판단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큰 일만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작고 가볍고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때로는 큰 행복을 주기도 한다. 이른 아침 집안에 퍼지는 향기로운 커피 향, 침대보를 갈고 처음 누웠을 때의 뽀송한 감촉,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글 때 느껴지는 평온함 등, 사소한 즐거움이 느껴지는 날은 살맛이 난다. 다가올 시간을 가볍게 이겨낼 수

한자어나 고사성어는 잠시 잊어 주세요 -너무 많이 쓰면 글이 고리타분해져 읽기 싫다-

문학잡지를 편집할 때의 일이다. 한 분이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18매의 글 한 편에 고사성어가 20개 정도 나왔다. 편집위원들이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문제는 누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였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나를 쳐다보길래 할 수 없이 내가 메었다. 이런 경우 아무리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전화를 걸어도 "당신 원고가 이러저러한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건 깨진다. 심할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다정한 관계까지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분은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집위원들을 가르치려는 듯 자기의 심정을 고사성어보다 더 잘 나타내는 게 없다며, 그대로 놔두기를 고집하셨다. 당장 원고를 빼고 싶어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지만, 내일도 모레도 볼 얼굴이니 꾹 참고 반만이라도 줄이자고 했다. 한편으론 자기 글이니 망신을 당하든 말든 내버려 두자는 심사도 있었지만, 결국은 책을 잘 만들고 잡지의 수준을 높여야 하니 절충하고 말았다. 나는 전화를 끊으며 '편집자가 자존심도 없이 더 강하게 못하고…, 아니 무슨 고사성어 사전을 만드냐, 그렇게 나열해서 쓸 거면 창작이 뭐가 필요한가.'라고 중얼대며 진저리를 쳤다.

그 뒤부터 나는 수강생들 글 안에서 고사성어 2개 이상만 나와도 경기를 한다. 좀 지나칠 정도로 못 쓰게 한다. 정 쓰고 싶으면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 한 번은 수강생이 물었다.

"선생님, 중국문학 전공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좋고 고운 게 많은데요. 우리말 씁시다. 우리말!"

나에게 고사성어는 트라우마다.

<이경은의 글쓰기 강의 노트> 중에서 발췌

⇨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기도 한다.

젊은 날에는 소소한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했다. 시간에 쫓기어 허둥지둥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을 지나쳤다. 현실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다. 현재 누릴 행복을 미루어 놓았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니 불평할 수는 없다. 지나고 나니 그때 놓쳐버린 것들이 아쉽고 그립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사소한 일들로 이어진다. 나이 들어가면서 새삼 사소한 것에 감사한다.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걷게 된 일, 맛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일, 머리빗을 새로 사는 일, 한가하게 게으름 피우는 일 등이 요즈음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나 자신이 만족하고 즐기는데 있지 않을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을 즐기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 자유를 갖고 싶다.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면 더 확실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맘에 쏙 드는 빗을 가지고 있고, 손 닿는 곳에 비누와 샴푸와 치약을 놓아두고 있다. 나는 호사를 누리고 산다.

봄과의 약속 / 김민정

새해의 시작은 1월이지만, 봄이 되어야 비로소 나는 새 희망을 품는다. 겨울을 뚫고 무엇을 시작하기엔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기에. 이번 봄은 예전의 그것과는 다르다. 달라야 한다. 50 번째의 봄은 특별해야 하니까.

지금까지는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았다. 머리가 시키는 많은 일을 몸이 충실히 따랐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꾸역꾸역 해냈고, 하고 싶은 일들은 '나중'이라는 시간으로 묶어 구석에 밀어 두었다. 학교 수업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듯, 인생의 중간 지점에 도달했다. 이제는 책상에 바짝 붙였던 의자도 뒤로 빼고 느긋하게 앉아서 친구들과 여유롭게 점심시간을 즐기듯이 나에게 쉬는 시간을 주고 싶다.

구석 자리에 처박아 두었던, 하고 싶었던 것들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풀어 보는 시간이다. 라틴록의 선구자인 '산타나'의 기타 치는 모습에 매혹되어 기타를 배우고 싶었던 소망, 두 손을 모으고 꼿꼿한 자세로 심신을 단련하는 요가 수업,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가까운 공원을 거닐어보는 상상, 아이들 책을 반납하는 목적이 아닌,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고르러 들어가는 도서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맛있다고 소문난 레스토랑에 예쁜 옷을 입고 걸어 들어가는 순간 등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시작해보리라.

시간이 문제다. 큰애와 작은애가 새벽부터 고등학교에 등교해야 하고, 막내가 초등학생이라 나의 돌봄이 여전히 필요하다. 아이들이 등교한 후에는 일을 해야 하니 어느 것도 쉽게 시작할 수가 없다. 부풀었던 마음에 작은 구멍이 생기더니 희망이 푸~욱하고 바람이 빠져버린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고 전화 고객 상담을 하려는데, 책상 위에 놓아둔 작은 brochure가 눈에 띄었다.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보조 교사 일을 시작한 친한 동생이 Substitute teaching 일을 해보라며 내 손에 쥐여 준 광고 전단이다. 거기에 적힌 학교 카운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고 나서 마침내 남편에게 선포했다. 이제 고객 상담 일은 그만하고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노라고. 남편 회사를 돕는 목적으로 시작한 고객 서비스 일이라서 신랑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 주 정도 지나서 학교 카운티에서 이메일이 왔고, 필요한 수업을 들으며 시험을 치렀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한 직업이지만, 영어에 자신이 없는 내게는 미국 아이들 교실에 들어가는 일이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드디어 Substitute teacher로서 일하고 있다. 아이들 픽업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매번 새로운 학교, 낯선 아이들을 만나러 들어가는 내가 기특하게 느껴진다. 젊은 시절의 수줍음과 소심함이 몇십 번의 봄을 지나오면서 당당하고 자유로운 들꽃으로 피어났나 보다.

그동안 소망했던 기타 강습과 요가 배우기, 도서관과 공원 나들이는 못하고 있지만 뜻밖의 전단 한 장이 지금까지 안 가 본 길을 안내해주었다. 나의 50 번째의 봄이 열어 준 길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야지. 앞으로 몇 번의 봄이 지나면 대체 교사가 아닌 정식으로 담임을 맡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괜찮다, 그러면 좀 어떤가 / 이혜숙

나는 유난히 도시나 사람의 이름을 외우지 못한다. 넉 자 이상 되는 이름은 몇 번을 되풀이 들어도 허공으로 홀연히 날아가 버리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내게는 낱말을 외우는 능력이 없나 보다 생각하며 크게 마음 두고 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긴 이름을 가진 작가와 그가 말한 인용어를 적절히 사용하여서 하고자 하는 말을 쉽게 풀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놀라운 기억력에 찬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나도 마음먹고 하면 그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하여 기억력 테스트를 해 보기로 했다. 어느 날 제법 긴 외국 도시 이름을 수없이 되뇌며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달달 외었다. 한데 다음 날 아침에 전날의 기억을 되살려 보았지만, 그 이름이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something wrong“ 처음으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두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특히 단어를 기억하는 뇌의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창 시절 역사 점수가 유난히 취약했던 이유가...

네다섯 살 때쯤으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나이였다. 돈암동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를 둔, 나보다 두 살 많은 동네 아이가 집 앞에서 놀고 있던 나를 살살 꼬셨다. 자기 엄마 가게에 같이 가자고, 그곳에 가려면 행길을 건너야 하므로 어린 나이에도 위험하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머뭇거리는 내게 자기 엄마 가게에 가면 맛있는 것 많이 먹을 수 있다며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 같다. 그리 내키지 않았지만 내 손을 꼭 잡은 그 아이의 말만 믿고 쫄랑쫄랑 따라갔다

우리 둘은 골목길을 나와 이웃 동네를 지나쳐 차들이 쌩쌩 달리는 큰 길 앞에 섰다. 차들이 뜸해진 사이 두 꼬맹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무사히 길을 건넜다. 그 순간 엄마에게 말을 안 하고 따라나선 데 대한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왔다. 무엇보다 찻길에 내려서자마자 잡은 손을 슬그머니 놓고 힘들게 뒤쫓아가는 어린 나는 염두에도 없이 뒤 한번 안 돌아보고 뛰어가던 그 아이에게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얼떨결에 “나 집에 갈래” 하고 말을 해 버렸다. 나는 그 애가 이제 엄마 가게에 다 왔으니까 맛있는 것 먹고 같이 돌아가자고 달래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길을 건널 때까지만 내가 필요했던 건가. 고. 의. 리. 없. 는. 나쁜 계집애는 “그래 갈 테면 가” 하더니 나를 남겨두고 잽싸게 시장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길 건너기 전과는 영 딴판인 말과 행동이었다. 속이 상한 나는 앞뒤 재보지도 않고 휙 돌아서며 차도로 뛰어내렸다. 택시가 달려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깨어나 보니 엄마와 아버지, 의사 선생님, 세분이 병실에 누워있는 나를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계셨다. 나는 온통 하얀 벽, 소독약 냄새, 낯선 침대에 놀라서 큰 소리로 앙~앙 대며 울었다. 사고 이틀 후였고 기적이라고 했다. 택시 밑에서 축 늘어진 나를 운전기사가 들어 안아 올리는 것을 본 길 건너 상점 주인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다.

P 13쪽 ⇨

구두약 / 조모제스

“감옥에서 나오라고!” 코로나바이러스가 만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지 1년이 훨씬 지났다. 친구들의 강요로 감옥을 탈출하기로 했다. 오랜만에 멋을 내고 싶었다. 반 부츠의 먼지를 닦으려고 구두약을 꺼냈다. 그 순간, 30년 전 내 얼굴에 구두약을 발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1992년 4월 29일 수요일. 과속 운전으로 도주하는 흑인 로드니 킹(Rodney King)의 난폭한 저항에 맞선 백인 경찰관들의 폭행이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은 날이다.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들이 많이 거주하는 사우스 센트럴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헬리콥터가 비춰주는 뉴스 장면은 그야말로 불바다다. 폭도들은 건물을 부수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약탈한다. 백인 운전자의 트럭을 세우고 끌어내어 폭행한다. 아수라장이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스왑밋 건물들, 삶의 터전들이 불타며 무너진다. 뉴스마다 한인들이 총을 쏘는 장면만 계속 보여준다. 흑백갈등을 한흑갈등으로 왜곡 보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폭도들의 파괴적인 행동과 진실을 왜곡시키는 주류 언론들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에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쏟아졌다. 한순간에 인생이 불타버린 그들의 고통과 함께.

밤 11시경. 새벽 2시까지 마켓을 운영하는 부부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 떨리는 목소리다. “아들이 낮에 차를 가지고 나가서 소식이 없어요. 주차장 주변에 폭도들이 소리치며 휘발유가든 콜라 깡통(Flaming can)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불을 끈 채 문을 잠그고 있단다.

불 속으로 가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괜히 전화했네. 혼자 갈까, 도움을 청해서 여럿이 갈까.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오래전 흑인 친구가 준 미 해병 복을 꺼내 입었다. 해병 마크와 이름이 그대로 있다. 군모를 쓰고, 군화를 신었다. 군화 끈을 묶다가 갑자기 구두약이 생각났다. 흑인이 아니면 폭행을 당하는데, 검은 얼굴로 꾸며야지. 손가락에 구두약을 찍어서 바르니, 미끈미끈한 게 휘발유 냄새가 진하다. 더 검게 보이려고 선글라스를 쓰고, 검은 가죽 장갑을 꼈다

웨스턴 길을 따라 남쪽으로 달렸다. 아담스 길에서 정지당했다. 순식간에 폭도들이 차 주변을 둘러싼다. 흑인이 아니면 끌어내릴 텐데…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리고, 브레이크를 밟은 무릎이 흔들린다. 숨을 크게 쉬었다. 침착하게 차창을 열었다. 그리고 왼손을 밖으로 쑥! 내밀며 엄지손가락을 척! 치켜세웠다. 손이 떨고 있었다. 내 모습을 보는 듯하더니, 가도 좋다고 손짓을 한다. 순간 폭도들이 비켜선다. 구두약의 효과!

안도의 숨을 쉬며, 제퍼슨 길까지 달렸다. 코너 왼쪽으로 돌아, 마켓 주차장으로 차를 난폭하게 몰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겁주기 위해서다. 조금 전까지 떨리던 겁은 어디로 갔나.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가, 총탄 냄새 화재 연기에 빨려든다. 주차장에 있던 폭도들이 물결처럼 퍼진다. 전조등과 깜빡이를 켠 채로 차 문을 열어 놓고,

뛰어나가, 쾅쾅쾅!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공포에 질린 부부가 나왔다. 잽싸게 차에 태웠다.

쏜살같이 빠져나와 북쪽으로 달렸다. 한인타운 가는 길이 갑자기 낯설고 두렵고 멀기만 하다. '침착하라,' 계속, 속으로 말하면서 전조등을 켠 채로 길을 막고 있는 폭도들에게 경적을 계속 울렸다. 흔히 시위대를 응원할 때 쓰는 방법인데, 그들을 응원한다는 뜻이다. 피코 길을 넘어섰다. 살았다! 온몸에 땀에 젖어 물이 흐르는 것을 그제야 느꼈다. 뒷자리에 앉은 부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의 서러운 눈물을 누가 닦아주랴. 구두약 바른 얼굴 위로 검은 눈물이 흐른다.

세월이 흐른 지금, 부부의 소식을 알 수 없다. 나도 어느새 고희(古稀)가 넘은 나이. 드디어 창살 없는 감옥에서 탈출했다. 오랜만에 만날 지인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설렌다. 얼굴이 아닌, 구두에 약을 바르면서, "너 때문에 살아 돌아온 거야.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 아주 큰 소리로, 하늘까지 들리라고 말했다. 듣는 자는 나뿐이다. 그때 정말 흑인처럼 보였을까. 아니야, 정말 흑인이었을 거야. 하하하!

구두약으로 열심히 닦은 구두가 유난히 빛난다.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고 은근한 멋을 부리면서,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젊은 노인의 "검은" 구두가 거울처럼 햇살에 반짝인다. 구두약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다. 갑자기 젊어지는 느낌이다.

⇨ 11쪽에서 연결

의사는 어깨 옆에 약간의 찰과상만 있을 뿐 눈에 보이는 별다른 외상은 없다고 했다. 몸체가 작은 아이는 넘어지면서 네 바퀴 사이에 안전하게 (?) 들어가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다.

혹시 그때 기억을 맡고 있는 뇌세포 어느 부분에 손상이 간 것은 아니었을까,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좀 더 스마트한 머리로 미래를 잘 계획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혹은 좋은 기억력으로 대화를 매끄럽게 풀어나가 삶이 풍요로워졌을까. 어릴 적에 또래보다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다. 그로 인해 일그러진 편견과 자아상을 갖게 되어 삶의 고비마다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아픔을 맛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시련들은 내 속을 좀 더 알차게 해 주었을 것이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포용력 또한 길러 주었으리라.

기억을 못 해서 좋은 점을 생각해 보았다. 단어뿐 아니라 속상했던 일과 나쁜 기억들은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지는 편이다. 어떤 이는 나를 보고 잔걱정이 없다고 하고 혹자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어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과 도시의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한들 어떠하리. 내게 꼭 필요한 것만 알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 그들과 좋은 추억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을.

내 기억력이 안 좋다고? 괜찮다, 그러면 좀 어떤가.

책자에 담긴 잔치 / 노영매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배가 아프고 식은땀이 흐른다. 울렁증을 가라앉히고 타이레놀을 먹고 누었는데, “일어나 밥 먹고 자, 너무 허기지겠다.”라는 남편의 말에 비몽사몽 잠에서 깨어났다. 남편의 칠순 잔치 준비가 나에게 버거웠었나 보다.

남편 생일은 1월 9일, 긴 연말 공휴일 끝에 따라온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새해 설날을 지내고 사람들이 더는 파티를 하고 싶지 않은 때 찾아오는지라 환영받지 못했다. 게다가 생일 같은 개인 기념사를 중요시할 만큼 여유 있게 살아오지 못한 탓도 있어 남편 생일은 언제나 슬그머니 지나갔다. 이번 생일은 잘해주고 싶었다. 둘만의 여행이 대세인 듯하나, 나는 뭔가 더 특별한 것을 원했다. 당사자도 시큰둥하게 “맘대로 해.”라고 하는데, 나는 생각의 꼬리를 멈출 수 없었다.

칠순, 70이라는 숫자가 마음을 끌었다. 80살은 늙은 느낌이고, 60살은 아직 젊은 것 같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감사를 나누기에는 70살이 아주 좋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옛사람들이 하나둘 그리움으로 떠오르며 더 늦기 전에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졌다.

타 주에 있는 아들에게 날짜를 알려주고 딸을 통해 인터넷 초청장을 만들었다. 처음 하는 경험인데, 이메일 주소로 지인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참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편리함에 내심 놀랐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아도 됐고, 어느 정도 참석인원을 파악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 신기한 것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온라인 서비스의 매력이다.

칠순 기념 책자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남편의 40년 지기 친구에게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족과 친지에게도 나의 뜻을 알렸다. 옛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기념될 만한 사진을 골랐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시간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남편의 일생을 몇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부탁한 글들이 도착했다. 먼저 남편 친구의 글, 여동생은 한국에서, 연이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조카가 각기 다른 내용의 축하를 알려왔다. 나는 신이 나서 16페이지 책자를 밤을 새워 만들었다. 당일 프로그램은 근처에 사는 조카에게 기타 연주와 싱어롱을 부탁했다. 장소와 음식 메뉴도 정해지고 오시는 분들도 거의 확정되었고 무심하던 남편도 협조적이어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이어져 나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이 심상치 않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며 송구영신 예배를 취소한 상황이다. 칠순 잔치의 여부를 곧 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습해 왔다. 60명 이상 초대한 상황인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났다. 고심 끝에 위험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결정을 내렸다. ‘죄송하지만, 칠순 잔치를 취소합니다.’라고 쓰고 키보드를 눌렀다.

애써서 준비한 칠순 잔치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아쉬운 마음은 감출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그동안 만든 책자를 초대한 분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남편이 자주 책자를 들여다보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다. 아쉬워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미치자 내 몸이 서서히 괜찮아졌다.

[동네방 모임 소식 1월~4월]

엘에이방 (Zoom) 2월 20일. 3월 20일, 4월 17일 7pm
오렌지방 A (Zoom) 2월 21일, 4월 18일 10pm
오렌지방 B (Zoom) 2월 21일, 3월 7일, 3월 21일, 4월 4일, 4월 18일 7pm
토렌스방 (대면 모임) 1월 26일, 2월 23일, 4월 28일 10am
밸리방
온동네방

[회비납부 상황 2022년 1월~ 3월 31일]

연회비($120) / 임선주 노영매 권조앤 전로사 박종진 김탁제 박연실 김혜자 김수영 김홍기
이혜숙 조모제스 유영주
이사회비($200) / 이현숙 한영 이리나 김화진 유숙자 정조앤 김석연 성민희
24집 출판비($150) / 김석연 성민희 이혜숙 유영주
협회 후원금 / 한영 이리나 김탁제 정조앤 이현숙 김석연 이일영(퓨전수필)
서재개설($50) / 노영매
재미수필 23집 판매/ 노영매 박종진

*본 협회는 여러분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연회비 $120 / 이사회비 $200 / 출판비 $150 / 서재 개설비 $50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Pay to Order : KEAA
김자넷 Janet Kim
주소: 22533 S. VERMONT AVE., UNIT 57, TORRANCE, CA 90502
*회비와 관련된 문의; jaemisupil2021@gmail.com

3월 “봄 나들이” 이모저모 (보물 찾기, 행시 짓기, 게임)

행시 "물푸레나무"

〈장원〉 이정호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는 그대여
푸르른 그대의 눈동자
레몬처럼 상큼한 그대의 향기
나도 몰래 너의 매력에 끌려
무심코 찾아온 물푸레나무 아래

〈차장〉 김카니
물푸레나무도 있고
푸른 하늘도 있고
레몬 향도 있는
나무 아래서
무슨 할 말이 많은 지 오순도순 모여 함께 하는
우리들

〈차하〉 여준영
물거품처럼 사라진다고
푸념일랑 말아라
레알! (Real) 인생인
나이랑 상관없이
무지개 꿈을 간직하는 것이거늘

〈아차상〉 김수영
물처럼 흐르는 마음으로
푸른 하늘 아래 모두 모여
레몬 향기 맡으며
나래를 펴니
무궁한 창공을 나르고 싶어라

한 잎의 女子

오규원

나는 한 女子를 사랑했네.
물푸레나무의 한 잎같이 쬐그만 女子,
그 한 잎의 女子를 사랑했네.
물푸레나무 그 한 잎의 솜털,
그 한 잎의 맑음,
그 한 잎의 영혼,
그 한 잎의 눈,
그리고 바람이 불면 보일 듯 보일 듯한
그 한 잎의 순결과 자유를 사랑했네.

정말로 나는 한 女子를 사랑했네.
女子만을 가진 女子,
女子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안 가진 女子,
눈물 같은 女子,
슬픔 같은 女子,
病身 같은 女子,
詩集 같은 女子,
그러나 누구나 영원히 가질 수 없는 女子,
그래서 불행한 女子.
그러나 영원히 나 혼자 가지는 女子,
물푸레나무 그림자 같은 슬픈 女子.

효율적인 수필낭송법

1) 온몸의 연기로 내용을 전달한다.

인간은 문자가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에도 자신의 느낌이나 감동을 음성과 몸짓으로 표현해 왔다. 문학작품 낭송자는 작품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소화하여 손짓, 발걸음과 같은 간단한 제스처와 눈빛이나 목소리로 연기해 나간다. 그리하여 독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문학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 깊은 감동을 전달받을 수 있게 한다.

2) 문학작품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문학은 원시 가무에서 출발한다. 원시 종합예술은 분화하여 몸짓은 무용과 연극으로, 소리는 음악으로, 노래 가사는 구비문학의 단계를 거쳐 문자 발생 이후 기록문학으로 정착되었다. 이처럼 문학은 속성상 재현이 아니라 표현이다. 낭송자의 목소리로 작품이 지닌 내면의 의미를 밝혀내는 적극적인 표현 방법 중의 하나가 문학 낭송이다. 눈으로 읽기보다 문자언어에 갇혀 있던 작가의 의견과 감정이 음성으로 표현되면 더 깊은 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3) 언어는 쉽고 전달력이 있어야 한다.

낭송의 전달수단은 언어이다. 낭송수필에 사용되는 언어가 논리적 비약을 가져오거나 상징성과 함축성이 지나치면 듣기 어렵게 된다. 한자어와 외래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추상적인 내용이 나열되는 경우 빠르게 낭송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하면 잘못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낭송수필은 가능한 쉬운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낭송을 할 때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한 발음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상징이나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낭송할 때에는 속도와 강약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품의 내용이 청중의 수준에 비해 어렵거나 난해하면 좀 더 천천히 또박또박 낭송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책을 읽듯이 똑같은 어조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적당한 시간차, 감정의 이입과 호흡의 적절한 조절, 시적인 운율과 리듬이 어울린 효과적인 낭송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

4) 작품과 낭송자는 일체가 되어야 한다.

수필이 지닌 묘미, 재미, 위트와 풍자 등이 잘 전달되려면 배우와 같은 발성이 필요하다. 언어의 강약과 높낮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 단락과 단락 간의 휴지(休止), 적당한 여운, 표정의 변화와 적절한 제스처, 호흡 등을 고려하면서 낭송해야 한다. 기계적으로 읽거나 꼿꼿이 서서 낭송하면 자세가 어색해진다. 글의 흐름에 따라 몸을 약간 이동하거나 시선을 움직이면 청자들의 지루함을 줄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요한 대목이나 단어 등을 낭송할 때에는 좀 큰 목소리와 또렷한 어조로 낭송한다.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구절이나 단어 앞뒤에 침묵이나 공백을 두어 말의 간격을 잘 조절하도록 한다.

2) 조금씩 목소리의 톤을 높이고 감정을 조금씩 고조시켜 청중들의 마음을 끌어당겨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크고 빠른 목소리로 계속해 나가다가 갑자기 어조를 바꾸거나 낙하시켜 작고 느린 목소리로 낭송해도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3) 중수필은 목소리가 장중하면서도 신뢰감이 있게 또박또박 낭송하는 것이 좋으며 표정이나 제스처에서 위엄을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감성적이고 사색적인 경수필에서는 차분한 어조와 사색적인 표정을 지어 보이고 위트와 유머가 담긴 부분에서는 밝은 표정과 명랑한 어조가 필요하다.

4) 낭송은 연기여야 한다.
낭송자는 무엇보다 작품의 분위기와 일체 되어야 한다. 작품적 배경, 작가의 생애,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비평이나 견해 등도 사전에 충분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설득력 있는 낭송이 되려면 작품이 몸에 배어나야 한다. 나아가 작품을 외우도록 한다. 암송하면 작품에 대한 성실함과 신뢰성을 보여 주어 청중의 호감을 얻게 된다. 가급적 청중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그들의 눈을 통해 심리적 반응을 읽으며 몸짓과 손짓 등의 시각적인 제스처를 거듭 연습하여 완전히 익히도록 해야 한다.

5) 주위 환경에 익숙하여야 한다.
청중이 많거나 트인 장소나 날이 어둡거나 실내가 어두운 곳, 약간의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제스처를 크게 하고 목소리도 다소 높여야 하며 청중의 수가 적거나 좁은 곳과 밝은 곳에서는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제스처도 너무 크게 하지 않는다.

6) 옷차림
낭송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중요하다. 낭송 내용에 어울리는 옷차림이 중요하며 외모와 옷차림에 따라 풍기는 인상도 달라지므로 개성 있고 멋있는 자기 연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짙은 단색이나 요란한 무늬의 복장이나 지나치게 번쩍거리는 장식품은 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상은 청중들의 시선을 방해하며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7) 목소리
글이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듯이 목소리에서는 인품, 지식수준, 교양, 가치관이나 지적 능력, 인간미 등이 묻어 나온다. 음성은 타고나지만 꾸준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좋은 음질로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흡연, 음식, 고함을 평소에 절제하고 사투리는 삼가는 게 좋다. 작품의 분위기에 맞추어 말의 억양이나 말투, 말의 높낮이, 말의 간격이나 여운 등 표출 방법 등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낭송은 목소리의 연출이기도 하다.

박양근 평론가
<낭송수필과 단수필의 이론과 실제> 에서 발췌

[웹페이지 게재순]

봄마중길

박진희

봄날은 간다네
마음에 사무친 일들
중고나라에 훌훌 털어버리고
길 찾아 더 늦기 전에 떠나기로 해요

성민희

봄이 별건가. 내 맘이 봄이지
마주치는 사람과 미소 나누고
중얼중얼 행복하다 자족하고
길섶에 핀 꽃 이쁘다 눈 맞추면 봄이지

김수영

봄처녀 나물 캐는 푸른 들판에
마중 나온 애완견이 꼬리를 흔드는데
중이 지나가다 곁눈질을 하네
길만 보고 갈 것이지 왜 딴짓 하노

유숙자

봄내 연습했던 남도 민요 창
마음 다해 시원하게 한 곡조 뽑고 보니
중망에 힘입은 우레 같은 박수갈채
길길이 너무 좋아 춤까지 추었네

이희숙

봄비가 소리 없이
마음을 살포시 적실 때
중심의 무게를 낮은 곳으로 향해
길섶에 수줍게 핀 들꽃을 본다

김카니

봄 봄 봄, 겨우내 움츠렸던 내
마음에 새봄이 올 때면
중요하게 다루던 그놈의 코로나도
길길이 날뛰다가 봄 즈음에는 완전히 사라지리라

이정호

봄에 피어있는 화사한 꽃이여
마치 천사처럼 환히 웃고 있구나
중도에서 머물다 언젠가는 떠나갈 우리처럼
길가에 피어있는 너도 곧 사라지겠지

신혜원

봄이 온양 마음이 설레
마중 나가듯 뜰에 나가 햇살을 만나니
중요한 일 다 잊고 어느새
길 잃은 양처럼 잔디밭 샛길만 돌고 도네

박유니스

봄이 왔어요
마당 가에도 담장 아래에도 왔어요
중신아비가 서둘러 다리를 놓아서
길 가 풀숲에서 봄과 대지가 혼인했어요

김영교

봄비 내린다
마냥 젖어 든다. 촉촉이 아래로 아래로
중요한 새싹 움트는 절기에
길 트며 부드럽게 내린다, 내 마음에도

여름호 행시 | 파란햇살

배헬레나

봄!
마음
중간점에서 보이는
길.

권조앤

봄날 오후
마루 끝에 걸터앉아
중얼중얼
길 떠나는 나그네 되고 싶어

이리나

봄이면 무화과에는 꽃과 열매가
마치 경쟁을 하듯 맺힌다
중간에 열매가 없는 것도 있다
길에서 시장하신 그분도 봤겠지

재미수필문학가협회 소식

4월 30일 이리나 수필집 북사인회 강남회관 11:30am
3월 26일 '봄 나들이'권조앤 댁-물푸레나무 그늘 아래서
2월 27일 (Zoom) 5pm 강사: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1월 30일 신년회(Zoom) 5pm
<회원 소식>
정찬열 회원 -'아메리칸 정삿갓' 유튜브 개설

타 문인협회 동정

미주문협&재미시협 4월 봄소풍- 장소: 죠수아트리
미주문협(Zoom) 3월 27일 7pm 강사: 오민석 교수
재미시협(Zoom) 3월 19일 6pm 강사: 유성호 교수
미주문협(Zoom) 2월 28일 7pm 강사: 고영범 작가
미주문협 신년회 (Zoom) 1월 20일 5:30pm
재미시협 신년하례식 J J Grand Hotel 1월 29일 4pm

창간호 발행 1999년

계간 퓨전수필 2022년
봄호
통권 제 77호
발행일 2022년 4월 10일
발행처 재미수필문학가협회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4946 Ea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2
U.S.A.
http//jaemisupil.com
jaemisupil2021@gmail.com

발행인 이현숙
sook1961@hotmail.com
편집인 성민희
janelyu36@gmail.com
정조앤
jchung315@yahoo.com
이리나
llee439@yahoo.com

편집후기

올해도 벌써 4월이다. 묵은 해는 가고 새해는 오고. 새 시간은 언제나 화사한 꿈을 가지고 온다. 우리 협회도 이제 계절의 변화가 왔다. 협회의 막내로만 있을 것 같던 이리나 회원이 어느새 중책을 맡아 협회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 박수를 보낸다. 이번호는 전혀 내 역할이 없을 만큼 두 분의 편집 실력이 발휘 되었기에. 드디어 기쁜 마음으로 편집인 은퇴를 하고자 한다. 올해부터는 제 2, 제 3의 이리나와 같은 후배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우리 협회의 앞날에 희망을 걸어본다. <민>

봄 들녘에는 초록빛으로 눈부시다. 그 틈 사이로 무리 지어 피어나는 꽃들의 시샘이 귀엽기만 하다. 자연은 순리대로 흘러가는데 지구 저 편에서는 전쟁이 한창이다. 권력을 남용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질투심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감사'의 의미를 절실히 알아가는 시간이다. 이제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기로 다짐한다. 모두에게 평안을 빈다.
<정>

배꽃을 눈처럼 내리며 봄이 살며시 왔다.
퓨전 수필 봄호에 편집인으로 참여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익숙지 않아 서툴지만 그럼에도 인내하며 많은 도움과 지도를 해준 두 분께 감사하다.
봄호에 기꺼이 글을 주신 작가분과 행시에 참가해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